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 김진우 5회 '와르르' 류제국에 '판정패'

KIA, 4-7 LG에 '덜미'



KIA 김진우가 12년 만에 이뤄진 LG 류제국과의 라이벌의 대결에서 판정패를 당했다.

KIA 타이거즈의 김진우가 1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5회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KIA는 홍재호·나지완의 홈런포에도 불구하고 김진우가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나면서 4-7 패를 기록했다.

김진우는 오지환의 기습번트로 선두타자를 내보낸 5회, 2루수의 송구실책 등으로 흔들리면서 4.2이닝 9피안타 1사구 4탈삼진 7실점(3자책)의 기록을 남기고 조기 강판됐다.

국내 복귀 후 첫 등판에 나선 1983년생 동갑내기 류제국의 성적은 5.1이닝 5피안타(2홈런) 2사구 4실점, 두 개의 피홈런이 있었지만 국내 첫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되면서 김진우에 판정승을 거뒀다.

19일 경기는 고교야구 무대를 평정했던 두 거물 투수의 재회로 화제가 됐다. LG 김기태 감독이 일찌감치 19일 KIA전을 류제국의 한국 데뷔전으로 예고한 가운데 김진우가 순서대로 선발로 나서면서 두 선수가 12년 만에 만났다.

김진우와 류제국은 고교 시절 이미 남다른 실력을 선보이며 각각 진흥고와 덕수고를 대표했던 에이스였다.

대어 중의 대어로 평가받았던 두 선수의 프로무대는 한국과 미국으로 달랐다. 고교 시절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과 실패도 있었던 두 사람은 류제국이 올 시즌 LG

유니폼을 입으면서 2000년 봉황기 이후 12년 만에 다시 한 마운드에서 선발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1·2회 두 사람의 회비가 엇갈렸다. 류제국이 1회를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막았지만 김진우가 초구에 LG 토타자 이대형에게 좌전 안타를 허용한 뒤 이병규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내줬다.

2회에는 류제국이 진땀을 흘렸다. 최희섭에게 첫 안타를 맞은 류제국이 2사 1루에서 7번 홍재호에게 좌측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얻어맞았다. 반면 김진우는 김용의에게 첫 탈삼진을 뽑은 뒤 사구로 맞은 1사 1루에서 손주인을 상대로 병살타를 유도하며 이닝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제구 난조 속에 김진우의 힘겨운 승부가 계속됐다. 3회 1사에서 오지환을 내야 안타로 내보낸 뒤 이병규의 적시타로 두 번째 점수를 내줬고, 4회에도 선두타자 김용의에게 2루타를 맞는 등 힘겨운 승부를 벌였다.

5회 오지환의 기습번트에 김진우가 흔들렸다. 정성훈의 2루수 앞 땅볼 때 홍재호의 2루 악송구가 나오면서 무사 1·2루. 박용택의 1타점 적시타에 이어 이병규의 3루수 앞 번트 안타로 1사 만루가 됐다. 정의운의 희생 플라이로 추가 점수를 내준 김진우는 2사 만루에서 터진 손주인의 싹쓸이 2루타로 7실점을 하고 강판됐다.

KIA가 6회 1사 1루에서 나온 나지완의 투런포로 추격에 나섰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경기는 4-7패로 끝났다.

한편 KIA 이범호는 이날 6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1300경기 출장 기록을 썼다. 프로야구 통산 51번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국프로야구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 무대에 정착한 LG 류제국(왼쪽)이 데뷔 무대에서 고교 시절 라이벌인 김진우(KIA 타이거즈)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다. 1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LG 대 KIA 경기에서 류제국은 5.1이닝 동안 탈삼진 없이 홈런 2개를 포함, 안타 5개를 허용하고 4실점(4자책)을 기록했고, 진우는 4.2이닝 동안 몸에 맞는 볼 3개를 던지는 등 제구가 흔들리면서 9피안타에 7실점(3자책)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순천 효천고 차명진 2경기 연속 완봉승

왕중왕전 8강 이끌어

순천 효천고의 차명진이 두 경기 연속 완봉승으로 왕중왕전 8강행을 이끌었다.

차명진은 18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겸 황금사자기 16강전에서 경남고 타선을 완벽 봉쇄하며 6-0 완봉승을 거뒀다. 효천고는 충훈고와의 32강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완봉승으로 8강에 선착했다.

4회 효천고가 볼넷 2개로 만든 1사 1·2루에서 김만수와 차명진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뽑아냈다. 이어진 1사 1·3루, 이상민의 스윙 때 상대 투수의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점수는 3-0이 됐다.

기선제압에 성공한 효천고는 차명진의 호투로 경남고의 발을 묶었다. 9회까지 121개의 공을 던진 차명진은 5피안타 1볼넷 5탈삼

진 무실점으로 대회 두 번째 승리도 완봉승으로 장식했다. 9회에는 1타점 3루타를 터트리는 등 타석에서도 5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동성고와 군산상고는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지난 17일 배재고를 상대한 동성고는 2-2로 맞선 8회말 김태선의 몸에 맞는 볼에 이어 김민혁의 희생번트와 박고훈의 적시타로 3-2 역전승을 기록했다.

군산상고도 1-2로 뒤진 7회, 5개의 볼넷과 상대 투수의 실책을 더해 대거 4점을 뽑으며 성남고를 8-3으로 꺾고 16강에 올랐다.

'죽음의 조'에 편성된 광주일고는 덕수고와의 16강 경기에서 8개의 안타를 가지고도 1점을 만드는 데 실패하면서 0-6 영봉패를 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FC 4경기 무패 행진

충주 험멜과 2-2 무승부



광주 FC가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렸다. 광주 FC가 19일 충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충주 험멜과의 K리그 챌린지 9라운드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면서 승점 3점을 챙기지는 못했지만 5월 무패행진(2승2무)은 계속됐다.

모처럼 스타팅 멤버로 나선 광주 골키퍼 윤기해가 전반 4분 충주 문정주와의 1대1 상황을 막으며 부상에서의 복귀를 알렸다.

광주가 전반 16분 김은선의 기습적인 슈팅과 전반 21분 코리카 상황에서 나온 임하람의 헤딩슛으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었지만

골문을 여는 데 실패하면서 전반전이 0-0으로 마무리됐다.

후반 9분 광주 여범규 감독이 먼저 교체카드를 사용하면서 분위기가 전환에 나섰다. 김준엽과 정경호가 빠지고 공격수 박현과 미드필더 여름이 그라운드에 올랐다. 새 멤버가 자리를 잡자마자 광주의 골이 터졌다.

지난 충주와의 FA컵 32강에서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을 터트린 김은선이 K리그 미수골이 골로 여 감독이 충주전 필승 해법으로 제시한 '선제골을 넣어라'의 미션을 성공시켰다. 후반 9분 광주 김은선이 골 에어리어에서 유종현이 머리로 넘겨준 공을 받아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충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선제골을 내준 충주도 교체 카드로 분위기가 뒤집기에 성공했다. 후반 12분 충주가 공격수 김다빈을 빼고 이영덕을 넣으며 전열을 가다듬었고, 1분 뒤 골 에어리어 오른쪽

에 있던 강주호가 오른발로 골을 집어넣으며 승부를 1-1로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24분 루시오의 그림 같은 슈팅이 나왔다. 박현의 태클로 공을 잡은 루시오가 아크 바깥쪽 정면에서 중거리 슈팅을 날렸다. 루시오의 발을 떠난 공이 그대로 충주 골문을 파고들면서 광주가 2-1 역전에 성공했다. 루시오의 시즌 3호골. 그러나 광주는 후반 33분 충주 박진수의 왼발슈팅을 막지 못하면서 2-2 동점을 허용했다.

광주는 후반 36분 부상에서 돌아온 권용남을 투입해 마지막 공세에 나섰지만 추가골을 넣는 데 실패하면서 승점 1점을 더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여범규 감독은 "그동안 실점하고 골러가는 경기를 많이 했다. 선제골을 넣는 경기를 하자고 강조했는데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잘해줬다. 추가득점을 못 해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며 "2주 동안 휴식기가 있다.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이 컨디션을 끌어올리면 후반기에는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지동원 팀을 구하다

분데스리가 최종전 빼기골 ... 아우크스부르크 잔류 이끌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광양제철고 출신 지동원(22·아우크스부르크)이 분데스리가 시즌 최종전에서 5호골을 터뜨리며 팀의 강등권 탈출에 뼈대를 바꿨다.

지동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아우크스부르크의 SGL 아레나에서 열린 그로이터 피르트와의 2012-2013 분데스리가 최종전 34라운드 홈경기에서 팀이 2-1로 앞선 후반 30분 빼기골을 꽂았다.

16위인 아우크스부르크는 3-1로 승리, 15위(승점 33)로 올라서 강등권에서 완전히 탈출했다. 15위였던 뒤셀도르프는 같은 시각 하노버에 0-3으로 완패해 17위(승점 30)로 밀렸다.

분데스리가에서는 17~18위가 자동 강등

되며, 16위는 2부리그 3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2010-2011 시즌 2부리그 2위에 올라 승격했던 아우크스부르크는 세 시즌 연속 1부리그에 살아남게 됐다.

이 경기에는 그로이터 피르트의 유망주 박정민(19)도 선발로 출전해 전반 43분까지 지동원과 맞대결했고, 후반에는 구자철(24·아우크스부르크)이 교체출전했다. 지동원은 올 시즌 5골, 구자철은 3골 2도움을 남겼다.

승점 3이 절실했던 아우크스부르크는 전반 30분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토비아스 베르너가 오른쪽 측면에서 찬 왼발 프리킥이 골키퍼 앞에서 한 번 튀고서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지동원은 전반 40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었으나 오른발로 강하게 차려다 미끄러져 아쉬움을 남겼다.

후반 들어 공세를 이어가던 아우크스부르크는 10분 만에 안-인베어 칼렌-브라커의 헤딩골로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후반 17분 플로리안 트링스에게 만회골을 내줘 불안한 리드를 지켰다.

그러자 지동원이 해결사로 나섰다.

후반 30분 베르너가 페널티아크 안에 있던 마티아스 오스트르졸레에게 패스했고, 오스트르졸레는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파고들던 지동원에게 공을 내줬다.

지동원은 강한 왼발 슈팅으로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아 팀의 1부리그 잔류를 사실상 확정했다.

지동원의 골이 터진 직후인 후반 32분 구자철이 베르너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아 아우크스부르크의 '한국인 듀오'가 강등권 탈출의 현장을 함께 했다.

구자철과 지동원은 종료 5분 전 이달아 날 카로운 슈팅을 날려 홈 팬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연합뉴스